

최고의 자연경관을 찾아가는 여행

 Lake Tekapo
Mackenzie

눈 덮인 산과 별이 가득한 하늘, 독특한 야생 동물 그리고 맛있는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남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여행을 만끽해 보세요.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최고의 자연경관을 찾아가는 여행

 Lake Tekapo
Mackenzie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눈 덮인 산과 별이 가득한 하늘, 독특한 야생 동물 그리고 맛있는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남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여행을 만끽해
보세요.

제1-2일: 크라이스트처치/아카로아

녹음이 무성한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에서 산책을 하고, 활기찬 시내에 위치한 부티크와 음식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서 지진 후 재건에 대해 알아보거나, 자전거를 대여해서 도심의 자전거 도로를 신나게 달립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곤돌라를 타고 언덕을 오르면 눈앞에 펼쳐진 캔터베리 평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원'으로 지정된 자이언츠 하우스가 위치한 프랑스풍의 작은 해안 마을인 아카로아의 당일 여행을 추천합니다. 아카로아 항만에서 크루즈 또는 카약을 타고 펭귄과 물개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헥터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4일: 테카포 호수

험준한 매켄지베이슨에 정착한 유럽인 정착민들이 건설한 상징적인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 테카포 호수의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합니다. 에어 사파리스가 제공하는 관광 비행에 참여하면 청록색 호수 위를 비행하며 서던알프스, 아오라키 마운트쿡 그리고 장엄한 빙하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국제 밤하늘 보호구로 지정된 이 특별한 장소의 철축 같은 하늘에는 쏟아지듯 아름다운 별이 떠오릅니다. 나이 타후 투어리즘이 운영하는 다크스카이 프로젝트에서 별의 이야기를 듣고 별을 직접 관측하는 체험을 합니다.

제5일: 아오라키 마운트쿡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오라키 마운트쿡을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또는 주변의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에서 감상합니다. 후커밸리 트랙의 쉬운 고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출렁다리를 건너고 빙하를 구경하거나, 글레이셔 익스플로러스 투어와 함께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뉴질랜드 최대의 빙하 아래에 떠 있는 빙산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합니다.

인근의 오마라마로 이동해서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클레이 절벽을 방문한 후 오마라마 핫터브의 미네랄 온천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6-7일: 오아마루

구불구불 흘러가는 와이타키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독특한 화이트스톤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유서 깊은 해안 마을인 오아마루에 도착합니다. 워킹 투어에 참여해서 풍부한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감상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식물원을 방문한 후, 매혹적인 스팀펄크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현지 수제 맥주와 치즈를 맛보고, 해질녘에 쇠푸른펭귄이 먹이사냥을 마치고 바다에서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제8-9일: 더니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에라키에 들러 해변가에 놓여 있는 마치 '거인의 구슬' 같은 고대의 둥근 바위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더니든에 도착한 후에는 시내 워킹 투어에 참여해서 더니든의 풍부한 스코틀랜드 문화유산과 활기찬 거리 예술 및 미술관을 탐방합니다.

유서 깊은 라나크 성과 토이투 오타고 정착민 박물관에서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경이로운 자연을 만나고 싶다면, 세계 유일의 노던로열앨버트로스 내륙 번식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물개와 뉴질랜드 펭귄을 관찰할 수 있는 오타고 반도를 추천합니다.

제10일: 퀸스타운

뉴질랜드 여행의 마지막 날, 센트럴오타고 와인 지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 퀸스타운에 도착합니다. 알파인 와인 투어스와 함께 3곳의 유명 와인리너에서 3코스 요리와 와인을 즐기는 프로그레시브 와인리너 런치 투어에 참여하거나, 노매드 사파리스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타고 반나절 와인 투어를 즐깁니다.

